경기의 人匠人

제4810호 9

2004년 5월 22일 토요일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32>

제33호 파주금산리민요

# 풍요의 땅서 울리는 농사소리 '감칠맛'

임진강을 따라 고양~파주를 잇는 자유로를 오르면 초소와 벙커, 군부대를 쉽게 마주한다.

북녘이 지척인 오두산전망대를 지나 예술인마을 헤이리아트에 들어서면 야트막한 산과 눈에 꽉 들어차는 논이 나란히 풍경을 이룬다.

물을 댄 논에 소를 끄는 농부는 없지만 트랙터에 모종을 얹어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높고 거칠지 않고 다정다감한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한반도의 젖줄을 이루는 임진강이 평야와 맞닿은 풍요로운 땅, 파주.

그 옛날 한양과 개성 중간에서 문화의 중심지를 이뤘던 이곳에 풍년을 노래하고 세월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옛 노래를 지켜가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사람들.

전형적인 농촌마을 금산리는 논농사 소리와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 다양한 민요가 전래되고 있다.

특히 두레 공동체를 통해 불려졌던 모찌는 소리, 김매기소리, 방아타령, 헤이리소리, 몸돌소리 등 다양한 농사소리가 가을들녘만큼이나 풍요롭다.

지난 2000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파주 금산

## 힘든 농사일에 흥·멋 담은 조상의 슬기

## 두레 공동체 중심 '농사소리' 명맥 이어

리 민요는 힘든 농사일에도 흥과 멋을 잃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기름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삶의 전통문화를 만들어 냈다. 파주 금산리 또한 두레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사소리가 구전되어 지금에 이른다.

금산리 민요는 일제식민지 때 두레놀이의 맥이 끊어지는 시련을 겪었으며,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두레농악을 재결성했다.

이때 어린시절을 농군들과 보내며 우리 소리와 가락을 익힌 추교현(65·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파주금산리민요 보존회장은 "금산리 선조들이 워낙 소리를 잘해서 흔히 하던 말이 '금산리 가서 소리하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레놀이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으로 농사가 중단됐고 1963년부터는 국가차원의 농업기계화(새마을운동) 추진으로 두레농업이 자연스레 소멸돼는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보존회가 주축이 돼 금산리 민요의 명맥을 잇고 있다.

금산리 민요는 1995년 파주문화원으로부터 '금산리 농요보존마을'로 지정받았으며, 율곡문화재나 장단콩축제 등 파주시의 크고 작은 공개행사에 참여해 일반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민속예술축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산리에서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가 끝난 후 말복이나 백중 중 하루를 골라 힘든 일을 맞치고 호미를 씻는다하여 '호미씻이'를 벌인다.

추 회장은 "그 때는 인근 동리의 두레패를 초청해 힘든 노동을 재미로 승화시키는 작은 축제판을 벌였었다"고 회상했다.

금산리는 안말(금산2리)과 넘말(금산1리)의 농부들이 패를 나눠 흰천에 검은 글씨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농상기를 앞세우고 상쇠, 부쇠, 제금, 징, 북, 장고, 쇄납 순으로 악기가 따른다.

때에 따라 농기싸움이 벌어지고, 선소리 가창자(메기는 소리)와 받는소리가 어우러져 흥을 돋운다.

농사소리는 '자~여러 동관네들 모찌러 들어가세 에 쩟네헤 쩌었네 모 한 춤을 쩠었네'(모찌는 소리)와 '자 새참들 다 자셨나 그럼 담배한대 태우고 모내러 가야지'(모심는 소리)를 시작으로 논농사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헤이리 소리'의 후렴구(받는소리)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파주만의 독특한 소리로 정평이 나 있다.

에- 에 헤- / 에- 허이 어 허- 야 / 에 헤, 에- 헤이리 / 노- 호- 오- 호야 (받는소리)

어- 헤헹 어- 어엉 / 어- 허어이 어허야 / 어러- 리 소리- 는 / 농- 사꾼의- 소리라(메기는소리)

에-- 에헤야하 / 엥에루화 좋구 좋다 / 어러험마- 듸어라 / 내- 사- 랑- 아하

에- 네- 헤 / 오- 호오이 오호야하 / 명사- 안 대- 천에 / 불- 공을 마- 할고호

에- 네헤 / 오호오이 오호야하 / 세월아 봄철아 / 오구 가지를 말어허라

이밖에 논김 양산도와 방아타령, 긴방아타령, 개성난봉가, 오돌독, 넬넬 상사도야, 몸돌소리 등 전국에서 농사의 전과정을 집약적으로 간직한 몇 안되는 소중한 전통문화다.

또 파주의 지리적 특성상 개성난봉가는 서도소리와 경기민요의 영향을 받은 민요이며, '길다랗구나 장대 몸돌,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등 새를 쫓는 시늉을 하며 부르는 몸돌소리의 사설은 유장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 보존회 50여명…매년 10여회 공개행사

## 학생·교사·일반인에 소리 전승 '온 힘'

보존회는 매년 10여회의 공개행사는 물론 파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강의에도 열심이다. 추 회장은 "파주 지역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삶의 진정성이 베어 있는 우리 소리와 장단을 가르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은 50여명 보존회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우선 금산리 민요를 전수시킬 수 있는 전수회관 건립이 첫번째 과제다. 지난해 8월 국정원 건물을 개보수해 전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처지다.

파주시는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도까지 제작하는 관심을 보였지만 예산부족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족의 자부심을 길러주고 전수하는 배움의 산실인 전수회관이 하루 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뻠뻡뻢뻦-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인터뷰 추교현 보존회장

## "전통건물로 지어진 전수회관 마련이 소원"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통건물로 지어진 전수회관을 갖는게 소원입니다"

추교현(65) 파주금산리민요 보존회장의 바람이다. 지역축제가 늘어나면서 두레놀이를 선보일 기회가 많아졌지만 전수회관이 없어 길거리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제법 공간이 넓은 보조회원 가정에서 연습하기가 다반사였다. 다행히 국정원과 파주시의 지원으로 국정원 건물(파주시 금산리 보현산)을 지난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회장은 "이미 교육관과 전수관 설계도가 나와 있지만 예산문제로 보류중"이라며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편입되는 지금 우리 조상이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실천장소로써 전수회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파주 금산리 출신으로 어릴때부터 농사소리와 장고, 꽹과리 등 풍장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오랜 동안 도시생활을 하며, 기업체에서 임원을 역임했던 그가 2001년부터 보존회장을 맡으면서 우리소리 알리기에 열심이다.

추 회장은 '임진각관광지 전통민속예술상설공연' 참가를 비롯 '세계도자기엑스포' 축하공연, '헤이리 페스티벌' 개막행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추 회장은 파주시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파주 소리를 전하는 것은 물론 남도와 영남농악을 배운 지도교사들에게 파주의 장단과 소리를 먼저 가르치고 있다.

7년째 이장직을 맡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추 회장은 향후 보존회 홈페이지 제작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42-9256

/이형복기자 bok@kgib.co.kr